

歐美石油産業 動向과 石油政策

I. 石油産業体制의 特色

1. 美國

① 美國에서는 7大 메이저中 BP를 제외한 6社에 아모코, 아르코의 2社를 합해 上位 8社로 精製能力세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上位 5社에서는 35%)이 中外資系企業은 셀(精製能力세어 6%) 뿐이다.

② 그 內訳을 보면, 精製能力세어, 石油製品販賣세어는 모두 1位인 엑슨까지도 8~9%정도에 걸쳐 세어面에서 보면, 이 정도규모의 企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③ 또 石油製品販賣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엑슨이 東部, 모빌이 뉴욕, 소칼이 西部, 텍사코가 南部와 같은 형태로 中心이 되는 販賣抛点を 갖고 그 지역에서 세어를 높이려는 方針을 취하고 있다.

④ 또 國產原油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國產原油를 개발·정제·판매하는 中小規模의 企業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색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도 있어 이러한 中小規模 企業의 세어가 높아지고 있는 바(78년부터 81년까지 3년간 20만B/D미만의 精製能力企業의 세어는 19%에서 25%로 증가) 정부의 규제철폐후의 이러한 企業의 動向이 注目되고 있다.

2. 英國

英國에서는 英國資本의 企業으로서 7大 메이저의 一員인 셀, BP가 각각 24%, 20%의 精製能力세어를 갖고 있다. 여기에 엑소(精製能力세어 17%)를 합한 3社(合計세어 61%)가 英國 石油産業의 리더십을 쥐고 있다.

또 여기에 모빌, 텍사코를 합한 上位 5社의 세어는 75%에 이르고 있다.

② 따라서 政府가 石油에 관해서는 自由市場政策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記 3社를 中心으로 業界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③ 政府는 BP에 대해 과거의 經緯로 46%의 出資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설립당초에 비해 國策會社로서의 색채는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④ 또 英國에서는 北海油田으로 石油의 自給体制가 확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선진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3. 西 獨

① 西獨에서는 自由市場政策의 결과 西獨 資本의 企業은 쉘(精製能力세어 15%)를 비롯하여 4社에 불과한데 그 精製能力세어합치는 28%이다.

② 外資系企業은 엑소(同 16%), BP(同 15%) 셀(同 12%) 모빌(同 10%)이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上位 쉘을 합한 上位 5社의 精製能力세어는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③ 또 販賣에 있어서는 쉘, 모빌등 3社가 공동출자한 ARAL이 .휘발유 스탠드의 23%를 보유하고 있다. 또 西獨에서는 國內需要의 약30%를 롯데르담을 中心으로 한 製品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항상 시장의 不安定要因이 되고 있다.

④ 또 西獨資本企業은 쉘 외에 빈텔스하르, URBK, 자르베르그베르케가 있으며, 이 中 쉘에는 44%의 政府出資가 되어 있고, 또 자르베르그베르케에는 政府出資 75%, 자르州政府出資25%가 되어 있다. 이러한 西獨資本企業은 石油 開發會社 데미빅스의 株主(4社로 100% 소유)이며, 정

□ 資 料 □

부는 데미닉스에 대한 資金助成을 하고 있다.

5. 프랑스

① 프랑스에서는 石油事業法에 따라 프랑스資本의 石油企業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는 Total(精製能力세어 26%), ELF(同 23%)의 2社의 세어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② 여기에 셸(同 19%), 엑소(同 14%), BP(同 13%)를 합한 上位 5社의 精製能力세어는 95%로 매우 높다. 그것은 79년에 걸프와 칼텍스가 프랑스市場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③ Total 및 ELF에 대해서는 政府가 각각 35%, 70% 出資하고 있으며, 또 Total은 石油開發会社인 CEP의 調達原油에 의존하고 있다.

II. 最近의 經營現況

1. 国内製品需要

① 80년의 国内제품수요는 歐美各國 모두 前年對比 8~15%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石炭을 비롯한 代替에너지의 도입, 省에너지의 推進이 産業用 重油의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 왔는데 예를 들면, 英國에서는 産業用 重油(Fuel Oil)은 前年對比 30%나 감소했다.

또 西獨, 프랑스에서는 價格上昇에 따른 家庭用 暖房油의 대폭적인 감소(예를 들면 西獨에서는 前年對比 18% 감소)가 현재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한편 揮發油需要는 美國에서 6% 정도의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西獨, 프랑스, 英國은 모두 2%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全体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堅調勢를 보이고 있다.

② 81年 上半期의 国内제품수요는 계속하여 前年對比 5~20% 감소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産業用 重油가 15~25%의 대폭적인 감소를 계속하고 있다.

2. 經常利益

① 80년의 石油企業의 經常利益은 대부분의 企業에서 前年對比 減益되고 있다. 歐美石油 企業은 上流部門과 一體가 되고 있기 때문에 全体像은 파

악하기 어렵지만, 下流部門은 실질적으로 赤字인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람코系企業은 原油調達코스트格差때문에 經常增益되고 있다.

下流部門의 經營악화의 원인은 수요감퇴에 따른 製品價格의 악세, 原油價格 상승에 따른 코스트上昇등을 들 수 있다.

② 이러한 傾向은 81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밖에도 美國의 高金利政策의 影響으로 各國通貨에 대한 달러貨의 상승으로 石油企業의 經營상황은 일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81年 上半期에 BP가 1억파운드 이상(약 1천 3백억원) 이상의 赤字, 獨逸BP가 81年 1~8月中에 6억마르크(약 1천 8백30억원) 이상의 赤字를 냈고 프랑스는 石油業界 전체가 81年 1월 이후매달 10억프랑(1천 2백억원) 정도의 赤字를 내고 있다.

또 美國에서는 81年 4월부터 실시된 규제철폐에 따라 中小정유사의 經營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III. 精製設備現況

1. 過剩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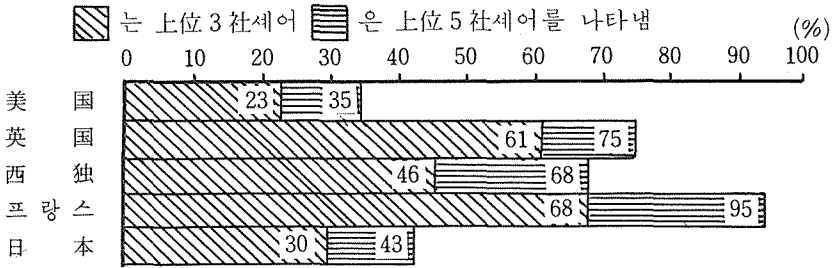
① 国内제품수요의 감퇴로 精製設備의 가동상황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81년의 稼動率은 美國이 70% 정도, 프랑스 60% 정도, 西獨 55% 정도, 英國 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대체로 前年度에 비해 10% 정도, 79년에 비해 15%정도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다.

② 이와 같은 製品需要의 감퇴에 따른 정제설비의 가동율저하는 企業에 심각한 影響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앞으로 石油製品수요가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展望이 일반적인데다가 産油國의 下流部門進出에 따른 제품수입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른바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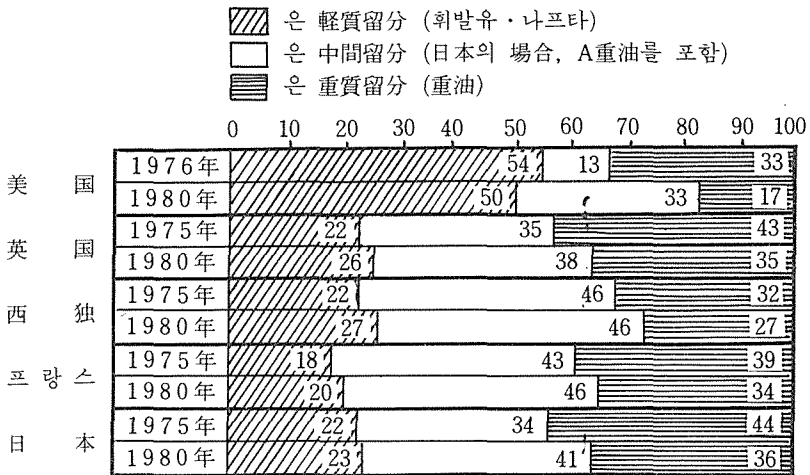
③ 따라서 石油企業은 격화되는 경쟁속에서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 設備의 休廢止문제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英國에서는 19개 정유공장中 2개 정유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이 중 특히 BP의 Kent 정유공장(20萬B/D)은 英國에서 BP정제능력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공장이다.

《參考資料》

1. 各國의 石油企業 集中度 (精製能力세어)



2. 各國의 生産所収率推移 (1975年과 1980年の 比較)



3. 各國의 重質油分解設備導入狀況 (1980年 1月 1日)

精製設備構成(千b/d)	美 国	英 国	西 独	프 랑 스	日 本
常 圧 蒸 留 装 置	18,709	2,527	2,986	3,385	5,940
接 触 改 質 装 置	3,924	400	424	431	578
接 触 分 解 装 置	5,305	182	180	195	359
水 素 化 分 解 装 置	888	27	35	14	13
비 스 브 레 이 커	152	37	67	23	0
디 레 이 드 코 커	1,000	53	46	0	39
콜 드 코 커	122	0	0	0	21

□ 資 料 □

또 西独에서는 BP가 정제능력의 3분의 1을 감축키로 했으며, 이미 西独전체로는 26만B/D(西独 정제능력 전체의 29%)의 폐쇄가 발표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오는 85년까지의 사이에 상당규모의 休廢止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 10個国 전체로는 85년까지 24%정도의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80년의 1,620만B/D가 85년에는 1,230만B/D).

또 美国에서는 규제철폐의 영향으로 小規模 精油工場을 中心으로 이미 40~50개의 정유공장(90만B/D 상당)이 폐쇄되었다. 또 효율적인 정유공장의 운용을 위해 老朽정유공장을 休廢止하는 한편 기존의 新銳정유공장을 공동이용하며, 정유공장 立地 추위의 판매지역을 한정축소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 重質油分解設備

① 이미 歐美各國은 모두 FCC, 비스브레이크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最近의 豫상을 상회하는 重油需要의 大幅減少로, 例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리포머·크래킹설비의 가동율이 120%에 이르는 등 各國이 모두 重質油分解設備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② 특히 프랑스에서는 第8次 에너지計劃에 따라 오는 90년에는 重質油分 取率이 현재의 30% 정도에서 20% 정도로 감소하는 한편 輕質油分 取率이 26%에서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필요한 분해설비의 도입을 위한 투자액은 무려 1백 50억 프랑(약 1조 8천억원)으로 試算되고 있다.

③ 또 美国에서는 오는 2000년에 中間留分(제트燃料油, 디젤油) 取率이 현재의 15%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既存 120만B/D의 重質油分解설비에 90년까지 70만B/D 相當分の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이 石油企業은 전체로서의 석유제품 수요가 增加하지 않는 가운데 과잉설비의 休廢止를 하면서 重質油分解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IV. 販賣現況

① 유럽에서는 이미 民族系企業의 統合을 거의 완료하였기 때문에 石油企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經營惡化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부문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또 美国에서는 모빌의 코노코買収(失敗)와 같은 企業買収의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② 揮發油需要가 상대적으로 堅調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휘발유 스탠드數의 대폭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例를 들면 美国에서는 72년부터 80년까지 8년간 30%(22만 6천 5백개소→15만 8천개소)의 스탠드數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 英國에서는 79년부터 80년까지 1년간 옛소, 셀의 스탠드가 15% 정도 감소했고, 西独도 이 기간중에 2만 8천 5백 40개소에서 2만 7천 30개소로 7.5%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V. 石油政策

① 第2次 石油危機에 따른 大幅의인 석유가격의 상승과 그 후의 수요감퇴로 各國의 石油企業은 과잉설비문제와 심각한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歐美各國은 石油의 安定供給確保의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② 특히 EC委員會에서는 精油業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설비문제 및 重質油分解設備의 도입문제가 重點的으로 검토되고 있다.

③ 美国에서는 규제철폐로 소규모 精油工場의 폐쇄등을 통해 石油産業의 集約化가 進展되고 있으며, 또 국내에 油田을 가진 石油企業은 대폭적인 이익을 거두어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소규모 정유공장이 새로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 各國의 價格政策에 있어서는 美国, 英國, 西独은 자유시장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主要油種에 대해 最高價格制를 채택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다른 EC諸國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해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